

섬유, 일본과 글로벌사업 강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일본섬유산업연맹과 공동으로 11월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간 섬유인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2차 한·일 섬유산업 연차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위기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섬유산업의 당면과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섬유교역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양국간 협력을 한층 높이고 섬유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화 진전에 따른 무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제3국에서의 양국 섬유기업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개발, 제품안전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양국간 정보와 기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아시아의 섬유패션진흥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8/11/14>